

일본 오키나와에서 보내는 열한번째 편지

이원철·정윤옥 선교사 | 2026년 5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인사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그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평안히 지내고 계셨는지요?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간절한 기도 덕분에, 저희는 이곳 오키나와에서 늘 강건하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도 편지에서는 '집중'과 '말씀'이라는 주제로 저희의 마음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리고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드리 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는 요즘입니다.

연합예배

오키나와 교회들과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

2주마다 드리는 YWAM 연합예배

저희는 이곳 오키나와에서 2주에 한 번씩 현지 교회들과 연합하여 YWAM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예배에는 한국에서 '24시간 기도회'를 섬기시는 여러 교회의 성도님들이 먼 길을 와주셔서 더욱 풍성하고 특별한 연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배가 주는 회복

사역의 현장에서는 때로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마주하기도 하고, 간절한 기대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지치거나 시선이 흩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주님은 저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의 은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참된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 회복

오키나와 분들과 한목소리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은 제 안에 이분들을 향한 더욱 깊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의 눈길 속에서 제가 누구인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살아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뜨거워집니다. 그 은혜의 임재 속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저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얻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회복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는 거룩한 공간임을 매번 경험합니다.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

성경에서 반복되며 늘 강조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제가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복음은 제 삶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묵상할수록 저를 새로운 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복음 전파

오키나와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 은혜는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열망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곳 오키나와에서 만나는 일본분들과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분들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으며 지금 제가 누리는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진솔하게 나눕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저도 모르게 목이 메고 그분의 거대한 사랑에 잠기곤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부여하신 이 눈물과 감격이, 이제는 복음을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서도 동일하게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이 땅의 마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이어오던 **다카요 성도님**이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신앙의 자리를 쉬겠다는 소식을 전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에, 그저 매일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닷가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집 앞 바닷가로 기도를 하러 나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다카요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었던 그간의 아픔을 묵묵히 들어주고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감사한 회복

감사하게도 그 만남 이후, 다시 교회에 가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분명히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삶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

우리의 역할은 그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하는 것이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기나와를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제 안에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동역자 사역

함께하는 동역자들과의 소중한 교제

사역의 현장에는 늘 함께 걸어주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만나는 분들과 식탁을 함께하며, 일상을 나누며,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 작은 만남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기도 동역자

한국에서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는 동역 교회와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오키나와 사역의 뿌리입니다.

현지 동역자

오키나와 현지 교회들과의 연합.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말씀 사역

류큐대학에서 일본어를 공부하며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갑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기도제목

1 오키나와 영혼들을 위한 기도

다카요상, 유즈상, 아이사상, 미우상, 히루니상, 유리야상, 세이카상, 나나상 — 이 분들이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3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오키나와 분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과 성경공부를 하도록 도와주소서.

2 류큐대학 사역을 위한 기도

류큐대학에서 일본어를 공부하며 함께 하는 교수님들, 학생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4 동역교회와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

정기적으로 함께 하는 동역교회와 동역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건강을 보호하여 주소서. 여러분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감사로 마무리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이다" (시편 126:5)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반드시 진정한 회복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키나와의 영혼들이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하여 저와 함께 이 행복한 고백을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보내주시는 기도 한 통 한 통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철·정윤옥 선교사 드림

2026년 5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오키나와에 생명을 심고 있습니다



